

몽골의 야스(뼈)와 초스(피)

박환영*

1. 머리말

몽골¹⁾에서 가장 보편적인 친척의 상징은 뼈, 피 그리고 살이다 (Nyambuu 1991:46). 몽골인들은 아버지의 정액이 아이의 뼈를 만드는 반면에 어머니의 자궁은 아이에게 살과 피를 공급한다고 말한다 (Vreeland 1954:56)²⁾. 일부 몽골의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 1) 여기서 말하는 몽골은 독립국인 “몽골”(Mongolia)을 의미한다. 또한 필자는 몽골에서 70%이상을 차지하는 할하(Halha) 몽골인들이 가지고 친척의 은유인 “뼈”와 “피” 그리고 “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2) 네팔의 북동쪽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인 쿨보(Khumbo)인들도 이와 유사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즉 아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어머니의 피인데, 이것은 아이의 살과 피를 형성하고 아이의 몸체를 만든다. 둘째는 아버지의 정액인데, 이것은 아이의 뼈와 뇌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정신이 또한 필요한데, 이것은 불교의 윤회사상 및 그 지역에 있는 신성한 산인 켄바룽(Khenbalung)과 연관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몽골에서 뼈(yas)의 은유는 부계(父系) 친척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반면에 피(tsus)와 살(mah)은 모계(母系) 친척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³⁾ 그러나 오늘날 실질적으로 피는 양쪽(양방계; bilateral) 친척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친척의 은유를 표시하는데 몽골인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왔다.

오늘날⁴⁾ 몽골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몽골이 사회주의화되기 이전에는 몽골사회에 단지 두 개의 상징만이 사용되었고, 뼈는 부계친척을, 피는 모계친척을 각각 나타내었다는 것이다.⁵⁾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의 상징은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러시아에서 지배적이던 피의 은유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내몽골의 오르도스(Ordos)(Krader 1963: 55)와 호르친(Khorchin) 몽골인들⁶⁾ 사이에서는 친척의 상징으로 단

-
- 3) 필자는 “모방계(matrilateral)” 대신에 “모계(matrilineal)”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몽골의 친척 체계가 분명하게도 각각 부계친척과 모계친척을 암시하는 *yasam töröl*(뼈의 관계 혹은 친척)과 *tsusan töröl*(피의 관계 혹은 친척)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단지 직계의(lineal) 친척만이 아니라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통하여 관련되어 있는 모든 친척집단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방계(patrilateral) 혹은 모방계(matrilateral)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4) 필자는 몽골에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1년 동안 현지연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필자가 규정하는 “오늘날”은 필자가 몽골에서 현지조사를 했던 시기로 1990년 이후에 몽골에서 사회주의가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및 경제적인 변화가 가시화되었던 때를 나타낸다.
- 5) 필자는 이러한 정보를 몽골의 여러 지식인들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삭달수렌(Shagdarsüren) 선생이 필자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하여 주었다.
- 6) 내몽골 출신인 Hürelbaatar와 개인적인 면담에 의하여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지 빠(*yas*)와 살(*mab*)만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한 자료제공자는 몽골어의 *tsus*(피)는 러시아어의 “*krrov'yan roi*”(문자 그대로 “피의 구성요소”)의 몽골식 번역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친척의 은유에 대한 사회주의 기간동안의 연구는 미흡한 편인데 몽골의 지식인들은(예를 들어서 Erdene-Ochir, Terbish, Dashnyam 등) 모계친척은 살과 피로 대표되었고, 부계친척은 빠로 상징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피는 친척을 나타내는 은유의 중심에 있는데 이것은 피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에 모두 관련되기 때문이다. 친척상징의 이러한 발전양상은 과거에 몽골인들은 두 개의 다른 계통(아버지와 어머니)과 두 개의 다른 범주(혈족과 인척)에 속해있었던 반면에, 오늘날 몽골인들은 피에 의하여 연관되어 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친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친척은 더 이상 서로 다른 직계(lineal)로서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출생이나 혼인의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문맥에서 양쪽을 다 포함하는 하나로서 생각하고 있다.

빠(*yas*)의 상징은 국적(nationality)이나 민족성(ethnicity)을 언급하기 위한 표현으로 현재에도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쓰이고 있는 몽골 단어 *yastan*(국적 혹은 민족/인종)은 *yas*(빠)와 *tan*(사람들)이 합하여 이루어졌고⁷⁾, 다른 몽골 단어 *yas undes*(민족성)의 문자 그대로 의미는 “빠의 뿌리”이다. 이와는 반대로 *tsus*(피)의 상징은 민족 내의 혼인(intramariage)과 서로 다른 민족 사이의 혼인(inter-marriage)을 나타내는데 흔히 쓰인다. 예를 들어서 몽골인들은 너무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서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이이면 *tsus oirbon*(문자 그대로 ‘피가 가깝다’)이라고 말하고, 민족 사이의 혼인

7) 이와 유사하게 접미사 *-tan*이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ctan*[*ac*(호의 혹은 장점) + *tan*(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oston*[*os*(복수 혹은 악의) + *ton*(사람); 나쁜 사람 혹은 적] 등이다.

(몽골인이 러시아인이나 중국인과 같은 다른 민족성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을 경우)의 결과로 인하여 민족성이 섞이게 되는 것을 기술하기 위하여 *tsus bolildson*(문자 그대로 ‘피가 섞였다’)이라고 말한다. 친척의 상징인 피는 몽골의 관습인 가까운 친구와 “의형제(*anda*)”를 맺는 관습을 통하여 친척의 범위를 넘어서 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친척의 상징이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친척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취급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친척과 친척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친숙한 정도와 도덕적 의무감(*moral obligation*)의 한계와 같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⁸⁾

1930년대 몽골사회에서 혈족(*töröl*)과 인척(*bud*)사이의 구분이 분명했다(Vreeland, 1953). 그러나 오늘날 몽골인들은 혈족과 인척을 함께 언급하기 위하여 *hamaatan* 혹은 *hamaatan sad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몽골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자신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잘 모르거나 적절한 친척용어를 잘 모르는 애매 모호한 상황에서 *hamaatan*을 사용한다. 이 용어는 아마도 상징적으로 다른 용어인 *hamaatatai bün*(문자 그대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과 연관이 있는지 모른다. 몽골인들이 *hamaatan*을 사용할 때 상대방이 친척인지 친척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hamaatan*을 지연과 민족성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체계로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람들은 *hamaat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친척관계를 더 넓은 친척집단으로 확대할 수 있

8)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은 때때로 친척말고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거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친척들과도 아는 사이가 대부분이다. 비록 경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친척이 아닌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경제적인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이익이 없으면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서로 간에 도덕적인 의무감이 약하다는 것이 친척관계와 다른 점이다(박환영, 1999).

다. 몽골사회에서 *hamaatan*이라는 용어는 13세기(예를 들어서 몽골비사)나 1930년대(Vreeland, 1953)에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hamaatan*은 '피'의 상징과 같이 새로운 양방계(bilateral) 용어인 것이다.

친척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은유는 오늘날 친척호칭과 친척관계에 내재하는 몽골인들의 의식세계(박환영, 2000a)를 상징적으로 재조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몽골사회 속에서 친척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친척관계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친척을 나타내는 세 가지 은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몽골사회와 친척

몽골사회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유목생활이다. 전통적으로 몽골사회는 유목경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시골에서는 여전히 유목이 몽골인들의 주된 경제활동이다.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은 그들의 주된 거주 형태인 겐(*ger*; 텐트)을 중심으로 견고한 가족 및 친척 사이의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몽골인들은 예측하기 힘든 유목생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Park, 1999). 도시나 마을과 같은 집단적인 거주 형태를 벗어나서 광활한 초원에서 가족 및 친척 단위 혹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독립적인 유목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인 것은 상호 의존적인 결속과 화합이다. 이러한 전통은 몽골의 격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예로 들어 보면, “당신에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당신은 아주 넓은 초원과 같지만, 그들이 여러분 곁에 없으면 당신은 좁은 손바닥과 같다”(Dashdondov 1998: 147).

방목지를 찾아서 정기적으로 자주 이동을 해야하는 유목생활은 단

시간에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유목생활을 하면서 몽골인들은 일년에 수 차례 이동하는⁹⁾ 것 말고도 상업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이웃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기회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전통적으로 여러 지역에 친척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이러한 이유로 몽골인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근친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몽골인들은 부계(父系) 상으로 9세대 이내의 결혼을 금지 시켰는데, 이것은 이러한 결혼이 몽골 사람들 표현으로 “피가 너무 가깝다”(tsus oirtob)라고 해서 금기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부계 상으로 9세대 이상의 결혼은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몽골 사람들의 표현으로 “뼈가 부서졌다”(yas baagav)라고 해서 부계 상으로 9세대 이상이 되면 친척의 유대를 이어주는 “뼈”가 부서져서 더 이상 친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것이다 (Terbish, 1991). 몽골사회에서 과거에는 부계 상으로 9세대까지를 친척으로 간주하여 결혼을 금지시켰던 것은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이 그 만큼 친척의 유대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유지시켜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가까운 친척 사이에 결혼을 불허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인척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친척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

Levi-Strauss(1969)가 언급했던 친척을 상징하는 세 가지 요소인 피, 살 그리고 뼈는 몽골인들에게는 친척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몽골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징들은 친척의 범위를 넘어서 씨족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9)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이 물과 방목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횟수는 지역과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물이 풍부한 강 주위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반면에 겨울에는 뒤에는 산을 끼고 앞으로는 탁 트인 곳에 텐트를 쳐서 북쪽의 강하고 추운 바람을 막고 따뜻한 햇빛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Park, 1997). 몽골비사(蒙古秘史)를 살펴보면 친척을 나타내는 이러한 상징들 중에서 피는 몽골사회에서 인위적인 친척의 하나인 의형제(*anda*)를 맺는 의식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보면 징기스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Yesugei)와 그의 친구 옹칸(Ong Khan)은 의형제를 맺기 위하여 서로의 피를 몇 방울씩 상대방의 우유 속에 넣어서 마시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Hoang 1990: 44). 친척을 상징하는 피를 인위적인 관계와 관련짓는 것은 몽골인들이 생각하는 친척의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록 인위적인 관계이지만 상대편의 피를 몇 방울이라도 마심으로써 피를 서로 나눈 친척과 마찬가지로 강한 결속력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몽골인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몽골정부가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게 되는 1921년을 기점으로 몽골사회는 큰 변화를 가지게 된다. 청나라의 오랜 압력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점진적으로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소홀히 하게 된다. 특히 집단농장제의 도입으로 전통적으로 친척의 결속력에 중심을 두어왔던 몽골의 유목경제가 사회주의 체제 속에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동을 하게 되면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특히 집단농장제의 도입으로 이동과 같은 유목생활에 관련된 제반업무는 각 지방에 있는 집단농장의 지역사무소(*negdel*)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무소에 설치된 탁아소, 회관 그리고 기타 복지시설 등의 여러 종류의 공공시설은 유목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친척의 도움을 더욱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 정부에서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혼인이라는 개념도 한 개인의 결합보다는 두 집안 더 나아가서는 두 친척 집단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롭게 더욱더 큰 친척집단을 만들어내는데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중매에 의한 혼인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혼인도 차츰 직장동료나 친구 사이에서 연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몽골의 사회주의 정부는 혼인을 적극 장려하였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몽골의 인구를 늘이는 한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젊은이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였다. 이때부터 몽골인들 사이의 혼인식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몽골인들의 겔(텐트)에서 행하여지기보다는 결혼궁전(*gerleb ёsoliim ordon*)이라고 부르는 공공장소에서 행하여지게 되었고, 혼인식의 중요한 의식으로 반드시 몽골국기 앞에서 사회주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맹세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혼인식에서 보여졌던 친척간의 결속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두 개인이 결합한다는 의미를 더욱 더 강조하게 되었다. 흔히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되면서 가부장적인 전통 속에 늘려왔던 몽골의 여성들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구(家口)내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대신해 줄만한 여건이 부족하여 몽골의 여성들은 가구 밖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들의 영역인 가구내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되어서 이른바 “이중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서구의 자유화 물결이 1990년에 밀려들어오면서 몽골사회에서 약 70년 동안 이어져오던 사회주의 체제는 약화되었고,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많은 사회 및 경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몽골인들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에 큰 변동을 가져왔다. 흔히 탈 사회주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때에 나온 몽골에 관한 한 보고서를 보면 1993년에 집세, 수도세 그리고 전기세가 각각 6.3, 8배 그리고 5배로 올랐다고 보고하고 있다(Batbyar 1994: 44). 오늘날 옷, 신발 그리고 전기제품과 같은 가공제품의 가격은 높은 반면 몽골인들의 임금은

났다.¹⁰⁾ 몽골의 여당인 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은 이후 보통 몽골인들의 실질임금은 1년 동안에 30%감소하였고, 1997년에는 한달 사이에 물가가 4%나 증가하였다(Kaye 1997: 26).

탈 사회주의 시기(1990년 이후)가 몽골에 시작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이전에(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국가가 통제하던 “집단적 분배 네트워크”(Odgaard 1996: 224)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선택과 경영의 자유는 극히 적었지만 최소한 계획된 생산과 분배는 존재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시골의 가축사육자들은 그들의 시골 생산물을 팔 수 있다는 보장도 또한 가공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도 가질 수 없다. 도시의 많은 거주자들 역시 가공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분의 충분한 현금이 없으며 또한 시골의 지역 생산물들을 쉽게 얻을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몽골인들은 “물물교환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to barter)”를 성립해야만 하고, 성립된 인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품을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탈 사회주의 몽골에서는 인간의 네트워크, 특히 친척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Griffin(1995: 38)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다섯 가지 상태의 빈곤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는 친척의 부족도 포함되어 있다. 즉 그들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적은 수의 가축들을 소유하거나 가축이 없는 사람, 자신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친척들이 없는 사람, 의복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등이다”. 탈 사회주의 몽골에서 빈곤상태를 정의하는 하나의 요소가 친척의 부족이라는 것은 그 만큼 친척이 오늘날에도

10) 마찬가지로 몽골의 대통령 오치르바트(Ochirbat)는 1993년에 행한 그의 국회 연설에서 “온 국민의 구매력이 1991년에는 42%까지 각각 떨어졌다” 말했다(Odgaard 1996: 116).

몽골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또한 논의되고 있는 친척을 상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좀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몽골사회에서 친척의 개념과 범위를 좀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3. 친척을 상징하는 뼈, 피 그리고 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의 친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yas*(뼈), *mab*(살) 그리고 *tsus*(피)이다.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티베트와 인도의 친척상징을 고찰하면서 필리피(Fillippi)와 오메리(O'Malley)의 관찰을 제시하고 있다. 즉 친척을 상징하는 뼈, 살 그리고 피는 티베트와 인도뿐만 아니라 몽골, 시베리아,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투르크족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친척의 상징이 몽골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몽골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몽골의 친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몽골의 장례의식 중에서 죽은 시체를 매장지 까지 운반하는 것을 언급하는 야스 바릭흐(*yas barib*; 문자 그대로는 “뼈를 든다”는 뜻)라는 습속이 있다.¹¹⁾ 시체가 야스(*yas*; 뼈)로 묘사되는 것은 아마도 죽은

11) 야스 바릭흐(*yas barib*) 의식에서 죽은 사람과 관계해서 좋은 해(*sain jil*)에 태어난 사람만이 시체를 운반할 수 있다. 몽골의 역법은 중국과 한국의 역법과 비슷해서 12년을 주기로 하는 달력에 근거한다. 이러한 주기는 쥐의 해를 시작으로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그리고 돼지 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몽골의 장례의식에서 매년 돌아오는 각 동물의 상징은 여기에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좋은 상징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두 개의 나쁜 상징으로 조합을 이루고 있다(Chojjin and Terbish 1990: 19). 즉 자신이 태어날 때 정해지는 동물의 상징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혹은 잘 어울리지 않는 동물의 상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후에 뼈, 살, 피로 구성되어 있는 육체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이 뼈이기 때문이다. 또한 뼈는 *obog*(씨족 혹은 *patronymic name*: 아버지의 이름에 접사를 붙인 이름)으로써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부계친척(*patrilineal kinship*)을 나타낸다(Szynkiewicz, 1984). 몽골사회에서 뼈라는 단어는 서로 민족성이 다른 여러 몽골집단에 의하여 개인의 *obog*를 언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부리아트, 오이라트 그리고 카자흐 몽골인들은 “당신의 야스(*yas*; 뼈)는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것과 같이 씨족을 의미하기 위하여 “뼈”를 사용한다.¹²⁾ 여러 몽골집단이 *obog*를 나타내기 위한 은유로 다양한 신체의 장기(예를 들어서 뼈와 간)를 사용하고 있다(Park, 1997). 그러나 씨족을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은유에 살과 피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뼈의 상징적 요소는 양고기 스프(국물)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습속에서도 남아 있다. 몽골 사람들이 말하기를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젖어있고 혹은 부드러운데(*zörben*), 이것을 양고기 스프(국물)에 목욕을 시키면 마르고(*buurai*), 강해진다(*hüchtei*)고 한다. 이러한 의식에 사용되는 양고기 스프는 고기(양고기 살)와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아기의 뼈와 피부(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친척의 상징으로서 살은 뼈와 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덜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친척의 상징(뼈와 피)과 대조해 보기 위하여 고찰하는 것도 흥미가 있다. 몽골의 시골에서는 뼈와 함께 살도 친척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몽골인들의 축제에는 *ots*(양의 꼬리 부분으로 만든 고기)를 *tehsb*(나무 판) 위에 올려

12) 다른 몽골집단도 씨족을 의미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집단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는 것은 재미있다. 이들 몽골집단들이 씨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는 어떻게 이들이 씨족을 이해하는지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놓는 의식이 있다. 혼인식이나 새해축제와 같은 가구(家口)내 축제 동안에 *ots*는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 위하여 준비되어진다. 몽골사람들은 *ots*가 양고기 중에서 가장 맛이 있고 영양이 있는 부위이므로 반드시 *tebsb*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보통 *ots*는 부드럽고 축축한 반면에 *tebsb*는 단단하고 건조하다. 이러한 의식에서 *ots*와 *tebsb*는 친척의 은유로서 각각 살과 뼈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ots*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준비되어지고 이것의 소비(consumption)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한정된다. *Ots*가 소비되어지면 단지 *tebsb*만 남는다. 이것은 죽은 후 인간의 육체가 썩어서 단지 뼈만 남는 방식과 유사하다. *Tebsb*는 가족의 가보(家寶)로 아버지로부터 아들(보통 막내아들)에게 부계적으로(patrilineally) 유산되어진다. 그러므로 *tebsb*를 부계적 계승(patrilineally transmission)과 연계를 시키는 것은 뼈의 은유와 일치한다. *Tebsb*는 뼈와 같이 부러뜨릴 수 있는데, 친척관계가 멀어질 때 실제적으로 부러진다. 몽골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몽골에는 새로운 *obog*가 만들어질 때 *tebsb*를 부러뜨려서 그것의 조각을 친척끼리 나누어 가지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친척들은 *tebsb*의 조각을 각 가정에 모셔두고 그것에 존경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몽골의 시골에는 일부 유목민들이 이러한 습속을 지키고 있다.¹³⁾

친척의 상징인 살은 모계적(matrilineal) 친척을 암시하는데,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이러한 친척은 단지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만 기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몽골의 여성들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모계 친척들은 한 곳에 거주하거나 집단을 형성

13) 몽골인들의 전통 중에 몇 세대가 지난 후(보통 5, 7 그리고 9세대) 새로운 *obog*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yas*(뼈)가 부러질 수 있어서 먼 친척들 사이에 혼인이 허용되기 때문이다(몽골의 지식인 Ochir와의 개인적인 대화로부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모계 친척들은 부계 친척들에 비하여 잘 기억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모방계(matrilateral) 친척들도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무시되기도 한다. 모방계 친척들이 그들의 인척을 방문하게 되면 어머니를 통하여 소개되어진다. 그러나 어머니가 죽고 나면 모방계 친척은 그들의 인척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사실 어머니가 죽어서 그녀의 살이 부패하게되면 모방계 친척과 그들의 인척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한다. 필자가 몽골의 시골에서 만났던 50대 후반의 한 할머니는 그녀가 죽고 나면 그녀의 친정 식구들(natal kin)이 그녀 남편의 친척 집단을 거의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비록 이 할머니의 친정 식구들이 이웃에 있는 쉼(sum)에 살고는 있지만 그 할머니가 친정 식구들과 남편의 친척들을 이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할머니의 자녀들과 할머니의 형제 자매들(특히 외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만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지속될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𐎯가 상징하는 부계 친척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오랫동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보통 부계의 결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9세대 동안은 살아서 남아있게 된다. 흔히 몽골인들은 𐎯의 각 마디(zye)가 부계의 각 세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부계의 결속을 인체의 𐎯와 비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머리로부터 어깨를 통하여 손가락까지 𐎯의 마디를 내려가 보면 이러한 𐎯의 연결이 한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다음에는 더 이상의 마디가 없다. 보통 𐎯의 이러한 연결이 아홉 개의 마디로 나타난다(머리에서 손가락까지 아홉 개의 마디를 상징한다). 이러한 아홉 개의 연결은 아홉 세대와 대응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홉 세대가 지난 후에는 부계 친척은 약해지게 된다. 몽골인들은 이러한 약해짐을 인식하고, 부계친척의 결속이 소원해지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것을 yas bagarab(𐎯는 부러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친척들도 일정한 세대가 지나면 서로 혼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친척의 은유인 살은 모계친척의 일시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반면에 친척의 은유인 뼈는 부계 친척의 주요한 특징인 연대기적 연계를 강조한다. 몽골사회에서 뼈가 은유하는 것은 부계친척의 중요한 특징인 이러한 연계인데 이것은 시간을 통하여 확대되는 친척의 연대기적 그리고 계보(系譜)적 결속을 조명해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살은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잠정적인 상태로서의 모계친척을 나타내어 준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피”의 개념은 사실상의(부계와 모계 모두) 친척을 포괄하는 반면에 “뼈”의 개념은 전통과 역사에서의 이론적인 친척의 기원과 관련해서 제한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과 먼 친척의 구분은 *tsus*(피)에 의해서 기술된다. 예를 들어서 *tsus oirtob*는 상대방의 피가 너무 가까워서 서로 혼인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tsus bol*은 상대방의 피가 서로 혼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더욱이 전통적인 *tsagaan yas*(흰색 뼈; 즉 귀족을 의미)와 *har yas*(검은색 뼈; 일반 평민을 의미)의 구분은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가문이나 혈통에 의한 신분상의 차이가 폐지되었고, 많은 귀족들은 국내의 억압자들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¹⁵⁾ 사회주의 기간 동

14) Terbish(1991: 2)는 몽골의 전통에 의하면 부계 상으로 9세대 이내에 속하는 친척들은 피가 너무 가깝기(*tsus oirtob*) 때문에 혼인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던 반면에 부계 상으로 9세대를 넘어가게 되면 “세대간의 연결이 약해지고(*uye multrav*)”, “뼈가 부러져서(*yas bagarav*)” 혼인이 허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몽골의 옛 습속이 근친간의 혼인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상징적으로 가까운 피는 혼인에 의하여 서로 혼합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15) 몽골에서 1921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은 외국 억압자들에 의한 잔인한 착취

안에는 귀족의 정체성은 더 이상 특권이나 명예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신분상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신분상에 의한 계급의 구분(즉 먼 과거로부터의 사회계급)은 점점 의미를 잃게 되었는데 이것은 위신, 명예 그리고 명성의 근본이었던 가족과 친척의 가치가 사회주의 혁명의 영웅으로서 가까운 과거에 등장한 부지런한 노동자, 가족사육자 그리고 새로운 지식인들에 의한 현재의 성취업적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하얀색 빠와 검은색 빠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탈 사회주의 몽골에서의 상황은 사회주의 때의 상황과는 자못 다르다. 비록 오늘날에는 혈통과 가문에 의한 신분상 계급의 구분이 사회주의 혁명 이전 때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을지라도 “먼/깊은” 과거를 향한 열망은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적 계급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몽골의 지식인들은 과거의 전통을 재창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친척의 은유를 사용하여 왔는데, 후손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의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입장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친척의 상징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합시키고 있는데, 몽골의 지식인들은 과거 몽골의 전통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최상의 조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논쟁 중에서 첫 번째 입장은 몽골사회에서 빠는 아버지 쪽을 상징하고, 살은 어머니 쪽을 상징하고, 피는 자식들을 상징한다는 입장이다(Nyambuu, 1991). 두 번째는 빠는 아버지 쪽을 상징하는 반면에 피는 어머니 쪽을 상징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살에 대한 언급이 없다(Erdene-Ochir, 1991; Terbish, 1991; Dashnyam and Ochir, 1991).

뿐만 아니라 토착적인 봉건주의자들에 의한 예측으로부터 민중들을 해방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Union of Mongolian Journalists 1981: 7).

세 번째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뼈는 아버지 쪽을 상징하고 살은 어머니 쪽을 상징한다는 입장인데, 피에 대한 언급은 없다.¹⁶⁾ 이상의 세 가지 입장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상징의 요소와는 상관없이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친척사이의 분명한 구분이 내포되어 있다. 뼈의 개념은 예외가 없이 아버지 쪽 친척을 나타내는 반면에 어머니 쪽 친척은 피 혹은 살에 의해서 상징되어진다.

비록 많은 사회에서 친척의 상징인 피와 살은 서로 바꾸어 질 수 있지만(Levi-Strauss, 1969) 탈 사회주의 몽골사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친척의 네트워크가 사실상의(real) 친척과 인위적인 친척 사이에서 확대되는 것은 친척의 개념이 넓어진 것을 암시한다. 친척을 상징하는 하나의 은유로 피의 특징은 친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피는 넓은 범위의 친척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흔히 사용되고 있다.

4. 새롭게 등장하는 친척의 은유 '피'

친척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피는 전통적으로 몽골사회에서 의형제(*anda*)를 맺는 의식에서 우유와 함께 흔히 보여진다(Hoang, 1990). 그러나 몽골사회에서 친척의 은유로는 뼈가 가장 보편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몽골사회에서는 친척의 범위를 정하여 혼인 여부를 결정할 때 '피'라는 상징보다는 '뼈'의 상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뼈'의 상징이 '피'의 상징보다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친척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특징을

16) 필자는 몽골의 지식인 Shagdarsüren 선생과의 개인적인 면담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𐎢’의 상징보다는 ‘피’의 상징이 몽골 사회에서 친척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친척의 상징적 요소 중에서 특히 피는 넓은 의미의 친척을 나타낸다. 필자는 오늘날 몽골인들¹⁷⁾에게는 다섯 가지 종류의 연관성(즉 몽골인들이 서로 연관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즉 여기에는 (1) 할하 몽골민족 집단; (2) 같은 *nutag*(출생지 혹은 같은 아이막(*aimag*) 혹은 сум(*sum*)); (3) 좋은 친구와 이웃; (4) 호라이(*huurai*)¹⁸⁾ 친척; (5) 사실상의 친척(혈족과 인척)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다섯 종류의 관계 속에 “피”의 요소가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피”라는 상징이 보통 친척과 친척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할하 몽골인들은 “피”에 의하여, 즉 징기스칸과 같은 동일한 조상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몽골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amin nasniibaa ursgalaas tasrāvch, altan urgiin belhee tasardagg i ee*” (비록 사람들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왕족의 피[징기스칸과의 연계]는 나누어져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30대 후반인 필자의 한 자료제공자는 이러한 말은 몽골인들이 피를 통하여 징기스칸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피의 요소는 종종 “몽골의 피”로 인식된다. 오늘날 몽골인들은 세 가지 유형의 피를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몽골의 피, 혼합된 혹은 혼혈의(*hybrid*) 피, 그리고 외국의 피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피는 혼인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할하 몽골인들은 혼인에 관한한 피에 대하여 두 가지 주요한 구분이 있는 것

17) 몽골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할하(Halha) 몽골인들을 의미한다.

18) *Huurai* 관계는 현대몽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위적인 친척관계이다(자세한 내용은 Park, 1997; 박환영, 1999 참조).

같다. 첫 번째는 혼인 상대자가 몽골의 피, 혼혈의 피, 혹은 외국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할하 혹은 할하가 아닌 기타 몽골의 피(즉 다른 몽골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혼혈(hybrid)의 의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피에 관한 것 같은데, 이것은 최근에 몽골인들은 다른 외국인들보다도 더 빈번하게 이들(중국인과 러시아인)과 교류를 해 왔기 때문이다.

혼혈 혹은 혼합성의 개념은 민족 사이의 혼인에서 보여지는 일부 유형이 왜 다른 것에 비하여 덜 “오염되었다”고 여겨지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할하 몽골인들은 보통 할하 몽골인들과 혼인하기를 선호하고, 부리아트 몽골인들은 부리아트 몽골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우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할하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혼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다른 몽골 민족과 혼인하기도 하고, 다른 몽골의 민족들도 같은 방식으로 할하 몽골인들과 거리낌 없이 혼인한다. 그러나 할하 몽골인들이 중국의 한족과 혼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족보(혹은 혈통)와 문화가 혼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혼합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아이들의 이름(人名)을 선택할 때에도 보여진다. 보통은 순수한 몽골이름을 선택하거나 혹은 몽골이름과 외래이름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래이름의 경우 일부 특정한 나라(러시아와 중국)에서 유래한 이름은 몽골인과 조상이 가깝다고 느껴지는 곳(예를 들어서 티베트)에서 유래한 이름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편이다 (박환영, 2000b).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일부 몽골인들은 외국인들과 많이 결혼하기도 하였는데 몽골인들은 이 경우에 몽골남자가 외국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몽골여자가 외국남자와 혼인하는 것 보다 더 선호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혼인의 결과로 태어나는 자식들의 정체성이 몽골에서는 보통 아버지 쪽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이름에 접사를 붙인 이름(patronymic)을 사용하는 몽골의 전통은(박환영, 2000a) 자식들의

부권(父權)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를 인식하는 한 방법이었다. 한편 몽골사회에서 보여지는 부처제(父處制; patrilocal residence)의 경향은 부권(父權)이 중요시되는 또 다른 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기간동안에도 몽골사회에서는 여전히 강한 부계(父系) 전통이 저변에 깔려있었다. 이 시기에 몽골의 많은 이름난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이 러시아 여성들과 혼인을 하였고(예를 들어서 시렌데브¹⁹⁾와 체렘발²⁰⁾, 이러한 혼인은 아마도 다른 몽골남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서로 다른 민족간의 혼인(inter-marriage)이 사회주의에 근거한 국경이 없는 평등한 세상인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마도 적절한 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는지도 모른다.

동일한 친척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혼인할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배우자는 보통 친척집단 밖에서 구해지는 반면에, 배우자를 정할 때는 다른 민족 혹은 국적보다는 같은 민족집단에 속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은 문화적 집단에 속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배우자는 같은 “피”를 가져야 하지만, 그들의 피는 혼인이 허용되기에 충분한 거리를 또한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것은 특히 몽골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피의 은유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측면이다. 탈 사회주의 몽골에서 “가능한 혼인 상대자”는 동일한 집단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은유적으로 피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운 “혈족”이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내몽골에서도 내몽골의 민족주의자들은 몽골인들이 중국의 한족과 혼인하는 것을 극구 반대

19) 시렌데브(Shirendev)는 몽골과학원의 원장이었던 몽골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다.

20) 체렘발(Tsedembal)은 1954년 몽골인민혁명당(MPRP)의 당수였고, 1974년에 몽골인민공화국(MPR)의 대통령이었던 몽골의 영향력 있는 정치가였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몽골인들이 중국 한족과의 혼인을 통하여 몽골 피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다(Jankowiak, 1993 and Humphrey, 1997). 오늘날 몽골인들이 자신의 친척과 혼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보통은 자신의 민족집단 안에서 혼인하도록 장려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혹자는 몽골인들이 넓은 의미에서 “민족의 족내혼(ethnic endogamy)”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Bulag, 1993). 필자는 몽골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최근에 민족의 족내혼을 향한 몽골인들의 열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가 약화된 후 할하 몽골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할하 몽골인들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 맺음말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피”는 친척의 상징 중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피는 주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한 쪽으로 피는 양방계(bilateral) 친척을 대표하고, 또 다른 한 쪽으로는 할하 몽골인들의 정체성을 포용하고 있다. 즉 몽골사회에서 피가 친척의 은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모계(母系) 요소에서 양방계 요소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부터 민족(할하 몽골)의 정체성에까지 관계하는 범위를 넓히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몽골인들은 부계 상으로 9세대가 지난 후 “뼈”는 부러지게되고 따라서 친척의 유대는 멀어지게 된다(*yas bagalabui, töröl sunjirsan*)라고 말하곤 하였다(Ochir and Serjee 1994: 20). 또한 뼈는 부분 혹은 연결 부위를 함께 연결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시각화되었다. 뼈와는 달리 친척을 상징하는 은유의 하나로 기능

하는 피는 일반적으로 시각화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피”는 뼈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친척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것은 피가 뼈 혹은 살보다도 친척들과의 관계정도를 표시하는데 더 포괄적인 인상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몽골인들은 좁은 의미에서 두 남녀가 혼인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할 때 “피”의 은유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의 인간관계를 기술할 때도 피의 은유를 이용한다. 다시 말해서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구체화하는 한 방편으로 “피”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²¹⁾ 피는 근친간의 혼인을 언급할 때도 사용되지만(즉 혼인을 허용하기에는 피가 “너무 가깝다”고 이야기 할 때), 가구(家口)내 문맥에서도 사용된다. 피의 은유가 이러한 방식으로 쓰이게 되면 그것은 배타적인 요인이다. 즉 피를 함께 나눈 사람들은 서로 혼인이 허용되지 않음을 지시한다. 그러나 “몽골의 피”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민족성을 나눈 것을 언급하게 되면 피는 포괄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친척의 한 은유로 몽골사회에서 피가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하였던 오래된 친척을 대신하고 새로운 친척을 보충하는 일련의 과정은 위에서 도출된 명백한 수수께끼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레비-스트로스는 서로 혼인할 수 없는 가까운 친척이 나중에는 어떻게 먼 친척이 되었고,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혼인

21) Bilik(1997)는 내몽골에서도 “피”의 은유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할하 몽골인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피의 은유는 아마도 러시아의 영향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ilik가 제시한대로 피의 은유가 일부분은 중국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하 몽골인들 사이에서 피의 은유가 널리 사용되는 것은 중국에 비하여 몽골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러시아 문화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할 수 있는 배우자로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만약에 친척관계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면 그들의 일부는 일정한 기간의 시간이 흘러간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열어주기 위하여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정해진 수의 세대가 지나간 후 새로운 혼인을 허용하기 위하여 혈족관계는 소멸되어야만 하는데, 이 때에 먼 혈족은 가능한 혼인상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Godelier 1987:7). 오늘날 몽골인들²²⁾은 그들이 문화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징적으로는 서로 묶여져 있다고 믿는다. 이전에는 서로 너무 가까워서 혼인할 수 없었던 몽골인들이 오늘날에는 혼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먼 관계에 있다. 몽골사회에서 뼈의 은유는 족외혼의 경계를 보여주는 반면에, 피의 은유는 국가와 민족집단의 맥락에서 족내혼의 인식을 장려하고 있다.

22) 해외의 모든 몽골민족과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몽골 사람들(*Mongolchuud*)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박환영

- 1999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현대 몽골의 실제적인 친족과 네트워크”, 『역사민속학』 8: 105-143.
2000a “현대 몽골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언어사용에 함축된 정체성과 소속감”, 『알타이학보』10: 151-168.
2000b “현대 몽골의 인명(人名)에 대하여”, 『몽골학』10: 25-44.

Batbyar, T

- 1994 “Mongolia in 1993-a fragile Democracy”, *Asian Survey*, 34(1): 41-45.

Bilik, N

- 1997 “Racial Metaphor as Politico-Cultural Construct in *Inner Mongolia*”, *Inner Asia*, 2(1): 16-23.

Bulag, U. E

- 1993 *Nationalism and Identity in Mongolia*, Ph.D. the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ojjin, P and N. Terbish

- 1990 *Amidrabuin uhaan(Philosophy of Life)*, Zavhan Aimag: Tuya Publishing Company.

Dashdondov, Ts

- 1988 *Ulamjal(Tradition)*, Ulaanbaatar.

Dashnyam, G and A. Ochir

- 1991 *Mongolchuudiin ugiin bichig, tüühiig sergeen hötlöhni*(The genealogy of Mongolians and a guide to its revival), Ulaanbaatar.

Erdene-Ochir, G

1991 *Hümeer bün büh mongol ubaamii survalj*(Reference book for up bringing Mongolian people), Ulaanbaatar.

Godelier, M

1987 “Levi-Strauss, Marx and after?” *Ming Yu Lecture*, New Asia Colleg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Griffin, K

1995 “Poverty: Concepts and Measurement”, in K. Griffin(ed.) *Poverty and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in Mongolia*,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27-44.

Hoang, M

1990 *Genghis Khan*, London: Saqi Books.

Humphrey, C

1997 “Exemplars and rules: aspects of the discourse of morality in Mongolia” in S. Howell(ed.) *The Ethnography of Moralities*, London: Routledge, pp. 25-47.

Jankowwiak, W

1993 *Sex, Death and Hierarchy in a Chinese C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aye, L

1997 “Enough Alread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11, pp. 26-28.

Krader, L

1963 *Social Organization of the Mongol-Turkic Pastoral Nomads*, The Hague: Mouton & Co.

Levi-Strauss, C

1969 *The Elementary Structure of Kinship*, Boston: Beacon Press.

Nyambuu, H

1991 *Hamgiin erbem yeson(The most important customs)*, Ulaanbaatar.

Ochir, A and J. Serjee

1994 *Hovdchuudiin obgiin lavlah, obog, ugiin bichig sergeeb zövlömj(Brief directory and advice on the revival of the Hovd people's clan and genealogy)*, Ulaanbaatar.

Odgaard, O

1996 "Living Standards and Poverty", in O. Bruun and O. Odgaard(eds.), *Mongolia in Transition*, Surrey: Curzon Press, pp. 103-134.

Park, H. Y

1997 *Kinship in Post-Socialist Mongolia: Its revival and Reinvention*, Ph.D. thesis, Cambridge University.

1999 "Lo spazio domestico: La tenda(ger) come centro delle relazioni sociali e di genere nella Mongolia post socialista", *la ricerca folklorica*, 40: 47-53.

Synkiewiez, S

1984 "Sheep Bone- A Sign of Human Descent: Symbolism of Tibia among the Mongols", *27th meeting of the Permanent International Altaic Conference*, Walberberg, F.R.G, pp. 1-20.

Terbish, N

1991 *Ugiin bichig(Genealogy)*, Ulaanbaatar.

Union of Mongolian Journalists

1981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Ulaanbaatar.

Vreeland, H. H

1954 *Mongol Community and Kinship Structure*, New Heaven.

Mongolian Bone(*yas*) and Blood(*tsus*)

Hwan-Young Park

In this paper, I looked into the three main kinship metaphors or symbols(bone, blood and flesh) which were used historically and are now in the process of being transformed. In theory, as argued by some Mongolian intellectuals, the metaphor of bone(*yas*) is usually employed to refer patrilineal kinship, while blood(*tsus*) or flesh(*mab*) is used to indicate matrilineal kinship. In practice today, however, blood is used to signify both sides(bilateral kinship). There has been an evolution in the use of these metaphors.

There is some speculation among Mongolian intellectuals that in the pre-socialist era only two metaphors(bone and flesh) were used to indicate patrilineal and matrilineal kinship respectively. Hence it is arguable that during the socialist era, the increased usage of the blood metaphor was influenced by the metaphor of blood that was dominant in Russian kinship. In support of this argument is the fact that among the Ordos and Khorchin Mongols in Inner Mongolia, neither of whom was influenced by the Russians, bone(*yas*) and flesh(*mab*) are the only symbols of kinship.

The way in which the metaphor of bone is used indicates that patrilineal kinship is significant long after the father's death. The patrilineal linkage usually remains viable for nine generations after the father passes away. Mongolian people often compare patrilineal linkage to the human skeleton,

with each joint(*uye*) of bone symbolising each patrilineal generation. If one takes, for example, the linkages of the bones in the skeleton from the head through the shoulders, down to the fingertips, one can see that these linkages have a limit; there are no more after the last joint of the fingertips. Usually this series of bones is seen as nine linkages(representing the nine joints from the head to the fingertips). These nine linkages correspond to nine generations. After these nine, patrilineal kinship is seen to have weakened.

In the past, Mongolians used to say that after nine generations the “bone” is breakable and thus kin connections become distant(*yas bagalabui, töröl sunjirsan*). ‘Bone’ was also visualised in a specific way as sections or joints joining together. Unlike ‘bone’, there is no general visualisation of the way blood functions as a metaphor. However, “blood” has become a more dominant symbol of kinship than bone, probably because it provides a more inclusive image of kinship and relatedness than either bone or flesh. Mongolians today employ the metaphor of “blood” both to discuss whether a couple is marriageable, on the smaller scale, as well as to describe the broad concept of relatedness on a large scale. People often use ‘blood’ as a way of specifying their “racial” identity. Blood is also used in domestic contexts, such as when referring to incestuous marriage(i.e., when the blood is said to be “too close” to permit marriage). When it is used in this way it is an exclusive factor-shared blood indicates that marriage is prohibited. But when it is used to refer to a shared ethnicity in the sense of having ‘Mongolian blood’ it is an inclusive factor. It seems contradictory but actually reflects two important aspects of blood as a metaphor for kinship.

Mongolians today believe they are culturally related and symbolically connected by ‘blood’. People who were formerly too close to marry each other in the past are now far enough apart to marry today. The metaphor of

bone shows the boundary of exogamy, while the metaphor of blood promotes an awareness of endogamy in the context of the nation and ethnic group.

Kinship metaphors delineate a matrix of relationships that maps out the way the world is seen. This matrix pervades the universe of Mongolian society and provides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for relationships in it. It situates the individual within this web, and concretises the individual's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members. The psychological security it provides replaces and vastly outdoes whatever security the socialist society was able to provide.